

# “충남 제일 사찰 만들겠다”

## 덕승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정묵 스님 임명

덕승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에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6일 덕승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정묵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전임 주지 지운 스님도 함께 자리를 꾸렸다. 임명장 수여 직후 정묵 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 기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 스님과 화합해 총림을 이끌어달라”면서 “중단 내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한 만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임 주지 지운 스님에게도 “4년간 덕승총림을 잘 가꾸어 주셨다. 사중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묵 스님은 “앞으로도 어른 스님을 잘 모시고 사중 안정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묵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을 짧게 밝혔다.

정묵 스님은 “덕승총림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과 제자 만공 스님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경허·만공 스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면서 “그간 외부 발전을 위한 불사가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사중 스님들의 복지와 지역 포교에 중점을 두고 사찰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충남권은 내포신도시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포교가 미흡하다. 이곳 포교에 수덕사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포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수덕사가 충남 제일 사찰이 돼 충청불교 부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우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해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선봉사, 호암사 주지와 12, 13, 14, 15대 중앙총회위원과 수석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호암사 회주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덕승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정묵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마지막 졸업식

## 8명 졸업, 7명 수료

올해 3월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로 전환되는 조계종 비구尼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가 2월 25일 마지막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을 끝으로 국제불교학교는 문을 닫는다.

용인 화운사에서 열린 ‘제3회 졸업식 및 4기 수료식’에서는 3기 8명이 졸업장과, 4기 7명은 수료장을 받았다.

국제불교학교 학장이자 화운사 주지 신임 스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공부를 도와줬던 종단과 화운사를 기억해달라”면서 “이곳을 거친 졸업생 스님들이 언제든 찾아오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학제는 5학기(2년6개월)로 구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는 2월 25일 용인 화운사에서 ‘제3회 졸업식 및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성되며 한 학년 10명 내외의 정원으로 운영된다. 영어 몰입교육은 물론 외국인 대상 전문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법을 강의하며 템플스테이 지도교육도 진행한다. 국제세미나 등에서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학비·기숙사비 등은 종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미래세대 위한 기구 결성한다

## 2차 100인 대중공사서 미래위원회 결성 결의

‘미래포교’를 주제로 2월 24일 열린 조계종 제2차 100인대중공사서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등의 성과를 내고 막을 내렸다. 8개 주제별 난장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심도깊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계종 100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2월 24일 2월 24일 공주 한국문화원수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 의제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은 1차 대중공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미래세대를 단순히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교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선정됐다.

난장 주제도 각각 계층의 눈높이에 맞게 설정됐다. ‘절에 가면 재미없어, 맨날 혼만 나 애틀이 바글바글할 절! 왜 일까?’, ‘중2병을 스님들은 아실까?’, ‘불교,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버리자(휴지통)’,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김일병, 왜 법당에 가냐’, ‘내가 포교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20대와 나누는 20대 이야기-20대

바로알기’, ‘사찰,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포세대를 위한 희망의 꿈단지’ 등이다. 특히 대학생 불자들도 참관인으로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공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토론장을 다니며 동참했으며 중단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스님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 24일 108명 모여 난장 토론 진행

### “청년이 한국불교 미래” 한목소리

### 8개 주제 토론회, 회진식 운영

### “심도깊은 논의 부족” 평가 나와

재가자 총 108명이 각 주제별 난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난장 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뜻을 모으고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화 불교대안학교 설립 △힐링콘텐츠 제공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 모색 △미래세대 위한 사찰 공간 제공 및 활용 공간 재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차 대중공사에서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이 3모둠 ‘불교, 이것만은 버리자’의 쓰레기통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쪽지를 넣으며 의견을 말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미래세대위원회 발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스님들과 학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길게는 1년 정도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공사 평가회에서는 주제별 난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장 주경 스님은 “새로운 형식에 대한 실험과 이벤트로 대중공사의 진실성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피상적인 문제지적에 머물고 말았다”고 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주제별 난장에서 나온 의견을 갖고 집중적인 토론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사전에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공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 총장부터 이사장 선출까지 몸살 앓는 동국대

## 이사 8명, 23일 회의서 새 이사장 일면 스님 선출

### 불교대·전임 교수들 합법 주장

### 총학·동문 등 법적 대응 검토

### 국회서도 동국대 문제 거론돼

총장 선임에 난항을 겪었던 동국대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 선출문제까지 불거지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새 이사장에 일면 스님이 선출된 가운데 그 과정을 두고 교내 구성원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23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89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임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교원인사 및 예산 안제리를 진행했다.

문제는 마지막 안건으로 현 이사장 정련 스님의 해임안 상정이 요청되며 시작됐다. 정련 스님 임기는 3월 11일까지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 이사들의 불만이 해임안으로 나타난 것.

일면 스님은 “제287회 이사회에서 다수의 요청에도 총장 선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 이사장 선출을 하지 않는 등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련 스님은 “이사장 해임과 이사장 선출 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고 오늘 이사회를 폐회하자”고 했으며 폐회 선언 후 퇴장했다. 이사장 정련 스님, 미산 스님, 김희욱 총장이 퇴장했으며 남은 이사 8명은 이사회를 속개하고 신임 이사장에 일면 스님을 선출했다.

동국대 학내 구성원들은 신임 이사장 선출을 두고 찬반 여론이 양분됐다. 불교대학 교수들과 전직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일면 스님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라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학내 대립과 반목이 격화되면서 학생들까지도 분열과 혼란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서로 화합하여 학교 정상화에 매진할 때”라고 피력했다.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사회 선출을 무효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최정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장은 “이사회 폐회 선언을 했고 임시의장 선출 자격도 없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는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돌입한 만큼 학생들에게 사건 경과를 알리고 규합에 주력할 계획이다. 총동창회 동문들로 구성된 동국대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적 시비가 예상된다

이사회 파행으로 동국대 분규가 예상되자 국회에서도 이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동국대 이사회 파행운영에 관한 교육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우여 장관은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제289차 이사회에서 동국대 총장 선출을 무효하고, 경영부 총장 대행체제로 운영해 갈 것을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속리산 법주사 총림 지정 나선다

## 오는 3월 19일 관련 산중총회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현조)가 총림 지정을 추진한다.

법주사는 3월 19일 오후 1시 총림 지정 신청 논의를 위해 산중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 지정은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총무원장의 제청이 이뤄지면 중앙총회에서 총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지 현조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주사는 근대불교의 선지식인 금오스님의 선종을 계승한 도량”이라며 “금오스님으로부터 이어진 선종을 진작하고 금오 문도의 종가 사찰로서 면모를 갖추실 필요가 있다는 사중 의견이 많아 총림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림이 가지는 위상은 지역 신도에게도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한다”면서 “총정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총림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주사가 총림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불교의 9번째 총림이 된다.

신성민 기자

# 2015학년도 안정불교대학(경전반/범패학과/호적반) 신·편입생 모집 안내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종단 교육불사에 앞장서고자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교육시설을 갖추고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특 전 : 본 대학은 태고종도들의 도제양성과 교육비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청련사에서는 상당부분 학교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교 홈페이지 안정불교대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경 전 반 : 전통강원 과정 4년

학 년	학 기	1 학 기
1 학년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치 문(緇 門)
2 학년		서장(書狀), 도서(都序) 선요(禪要), 절요(節要)
3 학년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 2. 범패학과 : 교육과정 4년(범음, 범패, 작법)

학 년	학 기	1 학 기	2 학 기
		○ 기초과정 ○ 기 초 : 목탁 치는 법 및 요령 사용법 ○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경례, 각단예불 ○ 시 식 : 각종 제사의식 ○ 송경의식 : 화상 및 대장의식	• 상주권공 • 작법과정 • 사물 다루는 법
		• 절도의식 과정 • 상단 불공 의식 • 종단 용호계 작법	• 제체비 및 범주, 바라지 • 실천행사 의식진행 과정 • 시련회 준비
		(영 산 I)	(영 산 II)

## 3. 호적반 : 2년 과정

학 년	학 기	1 학 기	2 학 기
1 학년		태평소의 기초를 이해하고 태평소를 기초부터 배우며 태평소 기초습득과 능계(자진모리, 휘모리)를 마스터한다. ○ 교육과정 ○ 태평소 기초 1~4(4주 교육) ○ 능계 자진모리 1~3(3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전수바라, 막바라와 능계(거거리)를 마스터한다. ○ 교육과정 ○ 태평소 기초 1~7(7주 교육) ○ 능계 거거리 1~7(7주 교육)
2 학년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열불을 마스터 한다. ○ 교육과정 ○ 열불 1~7(7주 교육)	태평소를 이해하고 태평소의 가락을 배우며 태평소 대취타를 마스터한다. ○ 교육과정 ○ 대취타 1~7(7주 교육)

## 4. 모집과정 및 원서교부, 접수

모 집 과 정	경 전 반 (전통강원)	내전반	경전반(강원교육)
		내전반	기초과정, 상주권공, 작법, 각배, 영산
		예술반	호적(태평소)
원서교부 및 접 수	2015. 2. 16(월) ~ 2015. 3. 18(수) * 수시접수 가능함 본교 교학처 : 031)829-3220 교무담당: 일평법사 010.9180.3354 / 일효스님 010.5114.2033 인터넷 교부접수 ht tp://www. blue lotus. co. kr		

**안정불교대학 교학처**  
http://www.blue lotus. co. kr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031) 829-3220 FAX: (031) 836-1081  
교무담당: 일평법사 010-9180-3354 일효스님 010-5114-2033

\* 통학버스운행 : 매주 수·목요일 각과 수업시간에 맞춰서 운행. 구과반역 2번 출구에서 승차 가능. 입학시 학교측에 통학버스 이용 신청서 제출요.

## 5. 입학안내

입 학 자 격	중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한 (단, 승가학과 편입생은 타 강원대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본교 강주 스님께서 인정 하는 사람만 가능함. 범패학과 편입생은 시험결과에 따라 편 입학 자격이 부여 됨.)
입 학 식	일 시 :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련사 대적광전 대법당
개 강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경전반
수 업 시 간	경 전 반 - 안정불교대학 강사 효득(일우)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효범(일해)스님(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
	범패학과 - 강주 상진스님(안정불교대학 강주) / 강사 일면스님(옥진범음대학 3년 과정 졸업)
	호 적 반 - 위제영(중요무형문화재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현 국립국악 관현악단 상임단원)
	① 초 심 반 : 수요일 오전 9시-오전 12시 ② 차 문 반 : ④ 사 교 반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6시
호 적 반	① 기초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7시 (단, 수업특성상 수업편원을 선착순 10명으로 제한 함)

\* 상기 수업시간과 요일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 고 : 1. 경전반이나 범패학과는 각학년 공통과목이며 승가학과 및 범패학과는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2. 호적반은 특강과목이므로 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청장 할 수 없음.)

## 6. 입학서류 및 접수방법

공 통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반명함판 사진 5매 (특도수제자는 가사감상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482-8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내 안정불교대학 교학처